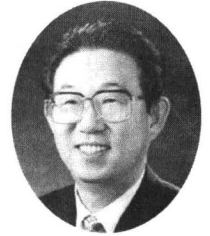


韓國 産業醫學의 開拓者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 돈 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유기적인 통일을 기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 산업의학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접근 방법에는 환경 인자의 측면에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려는 방향과 인간의 측면에서 환경 인자의 영향을 추구하려는 방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보건은 산업의학의 사회적 적용 즉,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직접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조직적인 보건활동이므로 환경관리와 병행하여 산업의학적인 접근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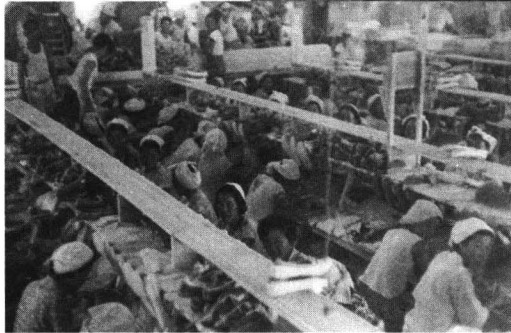
우리들은 최근까지 산업의학과 산업보건을 구별함이 없이 포괄하여 산업보건으로 흔히 사용하여 왔지만 직업병의 사회 문제화, 근로자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산업의학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산업의학회가 창립되었고 또한 산업의학 전문의 수련 과정이 제도화됨에 따라 산업의학의 올바른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산업의학'은 산업장 근로자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환의 진단, 치료, 재발을 목표로 하는 의학의 한 분과로 사회의 산업화에 대응하는 학문이며, '산업보건'은 노동과 노동조건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장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적응 특히 채용시 적정 배치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의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 서비스'가 학술적 연구보다 선행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 나라 초창기 산업보건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산업보건 사업을 수행한 업적이 알려져 있지 않고, 6·25동란으로 인한 정부의 부산 천도 때에 당시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있었던 김인달, 조규상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방직주식회사 부속 의원에서 방직공장 여공들을 대상으로한 보건관리와 학술 연구를 시도한 바가 있으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산업보건 서비스의 시작, 즉 우리 나라 산업보건의 효시는 대한석탄공사 보건관리실장 최영태박사(1952년 5월 - 1964년 8월)가 중심이 되어 장성광업소 부속병원에서 광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건관리사업과 그 업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영태박사는 세브란스의학전문을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에

60년대초 석탄광업소의 갱내 작업 현장조사팀 조규상, 정규철, 이광득, 오윤희, 연구원과 한국일보 이종수 과학부장



60년초의 고무신공장 여기서 요기용제 중독보고가 되었음

서 미생물학을 전공하였고, 일본 대판제국대학(현 오사카 대학교 의학부의 전신)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에서 미생물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1945년 우리나라 과도정부의 보건후생부 방역국장, 1949년 대한민국 보건부 방역국장 등 공무원으로도 봉직하였으며, 1948년에는 미국 미네소다 주립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52년 5월에 대한석탄공사 보건관리 실장으로 임명되어 13년간 봉직하면서 장성광업소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광부들의 건강관리 사업에 주력을 다하였다.

장성광업소 부속병원은 1936년 삼척개발주식회사 삼척탄좌병원으로 설립되어 1950년 11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부속의원으로 이관되었고 1953년 11월에는 보건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속의원에서 부속병원으로 격상되면서 광부들을 위한 건강관리가 제도화되어 체계적인 광부들의 보건관리와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성 부속병원 중앙실험실이 1958년에 신설되면서(실장은 이승한 교수: 현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당시로서는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경 측정기기들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체력과 체능 측정을 위한 기기들이 구비되어 있어 그 규모가 대단하였으나 이 기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카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초창기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겠다.

광부들의 건강관리에 전념하던 최영태박사는 조규상교수를 비롯하여 원세재, 박봉수, 이경린 등(방직공장 보건관리자들)과, 계린교(대한중석 보건관리실장), 이성관(경북의대 교수), 송인현(전남

대학 교수), 계원철(대한항공), 박영섭(부산 대동병원 원장), 이태준(대한석탄공사), 김응남(대한석탄공사), 이영춘(개정 농촌의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산업보건협회)를 1963년에 설립하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전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최회장은 산업보건협회의 첫 의뢰기관으로서 부속 직업병클리닉을 1965년에 개설하여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1966년에는 한국 해외개발공사 인력연구소 소장으로서 임명되어 월남 민간 의료반, 서독 파견 근로자 모집을 위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산업보건협회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기 위해 1966년에 6개의 지부(경인,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북, 부산·경남)를 결성하게 되고 1969년에 충북지부가 설립



제 1 회 보건관리자
훈련 수료
기념식 (1967)

되면서 7개 지부를 갖게 되었다. 공장 밀집 지역인 영등포에 산업보건센터를 1968년에 설립하였고 청계천 상가 피복공장 노동조합원의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청계천 상가 근로복지의원이 1971년에 개설되면서 국고보조로 시흥,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지부가 있는 주요 도시에 복지위원이 개설되었고 후에 이 복지 의원은 산업보건센터로 이관되게 된다. 그 동안의 업적으로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1967년에 정부로부터 위임받게 될 정도로 공신력이 신장되기도 하였으며 1972년에는 우리 나라 처음으로 산업보건협회가 주관인 집단 보건관리체제를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보건협회의 학술 활동도 우리 나라 산업의학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한·일간의 산업의학과 산업보건 기술교류를 위한 위원회가 1976년에 구성되어 격년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학술대회를 갖도록 정례화 하였고, 1979년에는 서울 신라 호텔에서 당시 아시아 산업보

건학회 회장이었던 최영태 박사에 의해 산업보건협회에서 주관하여 제9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보건협회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산업보건사업이나 학술적인 면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최영태 회장은 산업보건협회 회장직을 15년간 수행하면서 오늘날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기반을 굳건히 확립하였고,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아시아 산업보건협회 회장, 국제노동기구 월남 주제 고문, 노동청 산업보건위원회 위원장, 한국 해외개발공사 인력연구소 소장, 국제 산업보건협회 영구 회원 등 국내외 산업보건 관련 기관의 지도급 인사로서 활약하는 등 우리 나라 산업보건의 개척자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사로 손꼽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에서 최회장에게 보건산업공로 문화 포상, 산업보건공로 문화 포상 등을 수여하였을 것이다.

산업보건협회가 15년간 발전하는데 있어서 학술적인 뒷받침과

의료요원의 지원에 있어서 조규상 교수(현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및 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역할이 컸으며 이런 이유로 동 교실을 한국 산업의학의 메카로, 조규상 교수를 한국 산업의학의 개척자요 태두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조규상 교수는 194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동 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 1954년 전임강사로 있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항공의학연구소 제4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로 저기압에서의 환경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특수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규상 교수의 관심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최영태박사가 조규상 교수에게 장성탄광 광부들의 건강관리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1958년 신설 의과대학인 카톨릭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는데 이 때 주로 공군에서 근무하던 요원들을 중심으로 교실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자문의로서 장성 탄광 광부들의 건강관리와 연구에도 몰두하여 「탄광 상해의 위생학적 고찰(1958)」, 「석탄 광부들의 노동생산성에 관한 기본조사(1960)」 등이 벌써 1950년 후반의 의학 학술지에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열의의 결정으로 1959년에는 교토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 대학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조규상 교수는 1962년에 우리 나라 최초로 「산업의학연구소」를 카톨릭대학 의학부에 설립하고 연구 소장으로 취임하여 항공의학연구소와 장성병원에서의 연구 열의를 옮겨갔다. 당시의 연구원들은 모두 카톨릭대학 의학부 교수들로 구성되었고 연구소 학술지인 「한국의 산업의학」을 발간하였다. 이 학술지 역시 한국 최초의 산업의학 잡지로 당시 산업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복음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 대학에 있었던 필자 역시 이 잡지를 통하여 산업의학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다. 이 연구소의 업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62년부터 실행된 보건관리요원의 교육에 기여한 공과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처음으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때에 참여한 것이라 하겠다. 이 검진 결과는 「한국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결과와 사업장의 보건실태에 관한 종합 보고서(1964)」로 보고되었는데 전국을 망라한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작업환경 실태에 관한 첫 연구 논문으로서 이 분야 연구 논문의 참고 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제론의 여

지가 없다.

직업성 질환과 산업 재해자를 위한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규상 교수는 1971년 산업의학 연구소를 카톨릭대학 부속 카톨릭 산업의학센터로 격상시키면서 소장으로 취임하여 산하에 산업의학 연구소(소장 정규철 교수, 현 대한산업보건협회 중앙연구소 소장 겸 서울센터 소장), 산업재해병원(원장 이승한 교수, 현 산업보건협회 회장)을 두어 센터의 기능을 산업의학연구소의 연구 기능 외에 직업성 질환과 산업 재해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 기능을 부가, 확장시켰고 연구소의 기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1973년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산업의학 공동 연구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979년에는 제 9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보건학」(공저자: 이승한, 정규철, 이광목) 교과서를 편저하여 발행하였다. 1984년 증판을 거쳐 1991년에는 개정판을 발행하여 산업 의학을 공부하려는 젊은 학도들의 귀중한 교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으로 1981년에 취임한 조규상교수는 협회의 학술부를 대한산업의학회(1988년), 산업위생학회(1990년), 산업간호학회(1990년)로 독립시켜 각각의 전문분야 학자들이 모여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특히 산업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연간 1000만원의 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며 산업보건 전문의제도 제정(1995년)에 督勵(독려)와 激勵(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제1회 산업의학 전문의 고시 위원장으로서 전문의 배출에 渾身(혼신)의 힘을 다하였지만 본인 스스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이는 후학들에게 커다란 배움을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노동청 근로기준위원(1963-1967), 미국산업의학회 정회원(1963년-현재), 대한예방의학회장(1964년-1965년),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1963년-1981년), 미국 ACGIH 정회원(1966년-현재), 일본 산업위생협회 평의원(1967년-1969년), 국제산업의학회 정회원 및 한국 대표(1967년-현재), 세계보건기구 산업보건 자문위원(1972년-현재), 아시아 산업보건 사무총장(1981년-1996년) 등으로 국내외 산업 의학과 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평생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공로들이 인정되어 보사부장관 표창(67), 국무총리 표창(69),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표창(70,76), 국민훈장 모란장, 로마교황청 그레고리 은상 대홍장 등이 수여되었다.